

					I-B-4
제목	국문	한국의 IMF 경제위기 전.후 사망률의 변화			
	영문	Changes in mortality after the recent economic crisis in Korea			
저자 및 소속	국문	김한중 ¹ , 정우진 ² , 송영중 ³ , 이지전 ² , 남정모 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보건대학원 ² , 대학원 보건학과 ³			
	영문	Hanjoong Kim ¹ , Woo Jin Chung ² , Young Jong Song ³ , Jee Jeon Yi ² , Chung Mo Nam ¹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¹,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²,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³</i>			
분야	보건관리 [기타]	발표자	송영중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이 연구는 지난 97년 12월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게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사망률과 특정 질환별 사망률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그 규모와 변화패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연구자료는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이다.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계질환, 그리고 사망의 외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심혈관계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사망의 외인은 운수사고와 자살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개입분석(Interven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경제위기로 인해 변화한 사망률의 크기와 변화패턴을 모형화하고 검증하였다. 한편 시계열 개입분석에서 추정된 개입함수는 각 질환별 사망률의 변화크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보조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추가사망률을 정의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수량화하였다.</p> <p>3.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체 사망률은 경제위기 발생 1년 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야기된 추가사망률은 1998년 4.6명, 1999년 18.2명이었다. o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위기 직후부터 증가하였으며, 경제위기 전 대비 연간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추가사망률은 1998년 12.6명, 1999년 19.6명이었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추가사망률은 1998년 4.6명, 1999년 7.1명이었다.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추가사망률은 1998년 3.4명, 1999년 5.8명이었다. o 사망의 외인 중 운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위기 직후 첫 1년 동안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추가사망률은 1998년 -6.2명, 1999년 -2.8명이었다. 한편 자살률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3개월 후 부터 6개월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경제위기 전의 사망률로 회귀하는 패턴을 보였다. 추가사망률은 1998년 5.1명, 1999년 0.5명이었다. 					

4. 고찰

이 연구는 경제위기와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의미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경제위기로 야기된 실직 또는 수입의 감소 그리고 물가 상승 등 외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같은 질병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결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에서의 자료를 이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